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전교조 “동성애 성관념 가르치겠다”

학부모들 “동성애 교육교사 파면, 감사 실시”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 4일 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 등 성(性) 소수자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에 5일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관계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별초등학교 최모 교사를 파면하고, 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외쳤다.

최 교사는 지난 7월, 6학년 영어수업에서 퀴어(queer·동성애자) 축제 관련 영상을 보여줬다. 학부모들은 “사춘기도 안 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도 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성 소수자 교육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5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면서 한 발언이 논란을 빚었다. 이 교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성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커밍아웃(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할 수

있는 학급이 되도록 계기를 마련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교사가 동성애와 남성 혐오를 조장한다.”는 민원을 넣으며 반발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동성애를 막지 않으면 에이즈가 늘어난다”고 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고 교사는 학생에게 구두 사과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GNPNEWS]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로마서 2:20)

기도 | 하나님, 인간의 정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이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다음세대를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 주소서. 악한 세상에서 다음세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제공: WMM

- 요르단의 미디어인 광야

강력한

태양 빛 아래 붉은 사막으로 펼쳐진 미디어인 광야. 붉은 바위틈을 뚫고 자라난 푸른 잎의 나무가 만든 시원한 그늘. 갑급한 영혼을 기다리는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옛적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미디어인 광야로 피했다. 화려한 왕궁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유력한 자였던 그는 젊음의 패기를 잃고 노

쇠해졌다. 한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이미 꺾인 지 오래 전이었다.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주님이 예비한 그늘에서 안식을 누렸을 사람, 모세.

처음 도망쳐 나온 길에 탄식 섞인 한숨으로 털썩 주저앉았을 그 광야,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겨졌던 그 광야. 죽음과 같은 그 광야에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다시 그를

불러내셨다. 재개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직 순종의 사람으로. [GNPNEWS]

“만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2:17~18)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43)

예수나 교회 같은 것, 생각할 상황이 못 됩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부도를 맞아 하시던 사업을 접고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계시는군요. 이럴 땐 몸 사리는 친척, 소원해지는 친구 관계, 암담한 미래 등으로 몸보다 마음이 더욱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해결되고 숨통도 좀 트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인생들이 돈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돈을 가진 자들의 고통은 무엇이며, 끝없이 돈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도난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진정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하며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데...”하며 합리화하고 싶습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길어야 백 년입니다. 그러나 지옥 형벌은 영원합니다.

부도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당신, 위로는커녕 더 절망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까지 않는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착한 일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당신 대신 당신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



일러스트=김경선

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 당신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에 이릅니다. 부도의 절망을 벗어나 천국 소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02 뉴스 | 파키스탄
만 기독교 학생,
무슬림 학생 구타로 사망

03 기획 |
이라크 기독교인 난민행렬로
교회 폐쇄 잇따라

04 기획 | 조선선교열전(8)
군산 선교, 서해의 낙도까지
찾아 예술과 복음으로 섬겨

05 믿음의 현장을 가다 | 김명숙 권사
“어렵고 힘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진정한 부흥은
심령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아시아

바 기독교 학생, 무슬림 학생 구타로 사망



▶ 사룬 마시를 위한 장례식 예배(출처: godreports 캡처)

최근 파키스탄 편자브 지방에서 한 기독교인 남학생이 같은 반 무슬림 학생들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언론은 무슬림 학생들이 사룬 마시라는 피해 학생에게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살고 싶으면 감히 우리 옆에 앉지 마.”라고 협박한 데 이어 며칠 뒤 일부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를 때렸고,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자브주 베하리에 소재한 맥모델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며 용의자 학생은 체포됐다. 영국파키스탄기독교협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마시가 지난 8월 27일 이 학교로 전학 온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들은 마시를 큰 소리로 모욕하면서 폭행했으나, 교사나 학교 관계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아들의 등

록금을 마련해왔다.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무슬림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면서 “아이들이 아들을 ‘추흐라’(천민 계층)라고 불렀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은 내게 학생들에게 당했던 일을 이야기해주었고, 우리는 매일 밤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들은 학교 폭력을 자세히 알려주었지만,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친구들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아들을 미워했던 아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파키스탄기독교협회 월슨 초드리 회장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문화와 편향된 교육을 통해서, 소수 종교인들을 향한 미움이 어린 나이 때부터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라고 밝혔다. [GNPNEWS]

아메리카

美 프로스포츠 선수들, 동성애 인정 강요받아

미국 프로스포츠 산업이 동성애자들을 의미하는 LGBT 운동을 점점 더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 운동선수들이 각자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보도했다. 스포츠 컬럼니스트 조셉 이폴리토는 “현재 동성에 흐름은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종사자들이 그들의 양심과 경력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더패더럴리스트닷컴에 기고했다. 실제로 뉴욕에서 진행된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미국여자프로농구팀은 처음으로 행진 차량을 타

고 참여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프로농구 위원인 아담 실버는 2017년 올스타 게임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다른 주인 뉴올리언스로 옮겼다. 미국대학체육협회(NCAA)와 대서양해안리그(the Atlantic Coast Conference) 역시 그들의 챔피언십 경기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크리스천 선수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 미국축구연맹이 여자 국가대표팀이 몇몇 경기에서 무지개 색깔의 번호가 있는 운동복을 입을 예정이라고



▶ LGBT 행진에 참석한 프로농구연맹 NBA(출처: yahoo sports 캡처)

발표하자 크리스천 선수인 재일린 힌클은 팀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2015년에 힌클은 동성결혼 법안에 관하여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GNPNEWS]

한국

헤브론원형학교, 성경 통독 주제로 입학부흥회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헤브론원형학교는 9월 5일 충남 서산 본교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과 입학부흥회를 가졌다.

매년 입학식과 함께 부흥회를 갖고 있는 이 학교는 올해 ‘말씀 통독’의 말통 목사로 불리는 조상연 목사(조이교회)를 초청, 은혜를 누렸다. 조 목사는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하며, 순종이 바로 그 비밀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며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기 때문이며

성경은 이해가 아닌 믿기 위해서 읽는 책”이라고 말했다. 하루 10시간씩 10년간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전체 구조가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그는 “성경 읽기는 성경공부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는 그동안 정규수업으로 전교생이 성경 읽기 시간을 가져왔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28 ~ 9.15)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캐나다 여권 성별 표기란에 ‘X’ 추가

캐나다 오타와 주정부가 여권 성별 표기란에 남성(M), 여성(F)과 더불어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 성별을 추가했다고 현지 매체 내셔널포스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사탄의 속임을 드러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가 캐나다 교회를 통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거룩한 증인들의 삶과 가정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시에라리온 산사태 사망자 1천 명… 정부 발표의 두 배

시에라리온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우에 의한 산사태로 숨진 이들이 1천 명에 이른다는 증언이 속출했다고 27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여성 대표인 엘레노로 조코미 메츠거는 27일 열린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사망자 수는 정부 발표한 450명의 두 배라고 말했다. 주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며 주께 돌이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에라리온에서 호우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는 기회로 이 일을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콜롬비아 최대 마약조직, “당국에 투항 하겠다”

콜롬비아 최대 마약조직인 걸프 클랜이 당국에 투항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걸프 클랜의 우두머리가 조직원들과 함께 사법당국에 출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 주님. 마약 조직이 당국에 투항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수혜자로 참여시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美 ‘北전멸 가능성’ 경고… 최고 강도의 대북 경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며 최고 강도의 대북 경고를 내놓은 것과 관련 한반도 안보위기가 1994년 미국의 영변 북폭 시도 이후 최고조 상태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도발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북한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주셔서 영원한 삶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9월 18일 ~ 9월 30일

9월 18일~23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 ▶인천 계양 / 효성동감리교회 (조성환)032-548-4056
- 9.18~19,21~22(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9.18~22(매일 07~23시)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010-7439-7020
- 9.18~22(매일 14시~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9.21~22(매일 06~18시)
- ▶전북 전주 / 사론교회 (진**)010-4272-9905
- 9.22(08~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9.22(22시)~23(22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9월 25일~30일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최*)010-4202-0079
- ▶경기 광주 / 문광교회 (최**)010-3380-5781
- 9.25~26,28~29(매일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9.25~29(매일 14~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9.29(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9.29(22시)~30(22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라크 기독교인 난민행렬로 교회 폐쇄 잇따라

이라크 교회의 미래는 화려한 역사보다 성도들의 회심에 달려



▶ 이라크 카라코시 지역 도로에 파괴된 ISIS 간판(출처: The Atlantic 캡처)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빼앗겼던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에 다시 자유가 찾아왔다. 9개월 간의 전투와 3년간의 극심한 압제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도래한 희망의 소식이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은 다르다. 이라크의 새로운 변화가 주목되는 시점에 오히려 수도 바그다드의 남쪽에 있던 8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지난 7년 가까이 교인이 없던 이 교회들은 지난 5월 무렵 문을 닫았다.

기독교는 한때 이라크의 중요한 소수 종교의 하나였다. 21세기 초, 기독교는 총인구의 10%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인들에 대한 억압, 갈등, 실형, 박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독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제기독교연대는 바그다드 기독교계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라크의 기독교 이민은 3단계의 중요한 시기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시기는 2005년부터 2007년 무렵이다. 두 번째는 과격주의자들이 주일 예배시간에 교회를 공격하던 2010년경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ISIS가 니스웨 평원을 공격

하던 2014년이다.

2005년부터 시아파와 대립하던 수니파 과격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총알과 위협을 담은 경고장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유혈 사태와 죽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수천의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몰아냈다.

2006년 초 한 기독교인은 경고장을 받고 두려움에 고향을 떠나야 했다. 또 다른 한 기독교인은 당시 이들로부터 받은 3발의 총알과 봉투를 지금도 갖고 있다고 했다.

“지금부터 48시간 이내 이곳을 떠나라. 옷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떠난다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 이후 3년 동안 바그다드는 시아파 대 수니파 대 기독교의 종교와 종족의 전쟁터로 전락했다. 시아파와 수니파 폭력배들은 국가의 위기를 자신들의 권력과 영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대부분 비무장 세력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폭력배들의 표적이었다. 그렇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고향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한 지역 주민은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이라크를 떠난 난민 중 40%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사르곤이라는 한 이라크 기독교인이 말했다. “매일 집으로 돌아올 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시체를 보곤 했다. 귀가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아들은 친구나 친척 집에서 잠을 자곤 했다. 2005년에

오후 6시가 지나 집으로 온다면 살해를 당하거나, 운이 좋다면 길이 막혀 있었을 것이다.” 사르곤은 극단주의자들의 노골적인 위협을 받기도 했다.

“2006년 1월 집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검문소가 생겼다. 그리고 한 주 뒤, 아내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현관문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다. 그들이 집 앞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것이다. 만약 문을 열고 빨리 나갔다면 폭발로 바로 죽었을 것이다. 아내가 아직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2010년 두 번째 기독교인들의 대탈출은 바그다드에 있는 사이앗 알 나자(Sayedat al-najat) 시리아 교회의 테러 공격 이후 본격화됐다. 어느 날 6명의 자살 테러범들이 일요일 저녁 예배에 들이닥쳐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라크 보안군이 몇 시간 뒤에 도착했을 때, 테러범들은 시한폭탄을 작동시켜 58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다.

끝으로 세 번째 시기에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라크를 떠났다. 바로 2014년 ISIS의 등장 여파이다. 기독교인들과 소수 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는 의회와 국무부에 의해 대량학살로 명시되었다. 이때 기독교 공동체는 근간이 흔들렸고 흩어지게 되었다.

2017년 현재, 이라크의 기독교 인구는 극히 미미하다. 그 결과 이라크 교회 8개가 문을 닫았고 공동체의 유물이 되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많은 가해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차별을 15년 동안 직면해 왔다. 기



▶ ISIS 철수 이후 돌아온 이라크의 카라코시 시민들이 거대한 십자가를 세우는 모습(위)과 IS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로 무참히 손상된 한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출처: The Atlantic 캡처)

독교의 발생지 중 하나인 이라크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측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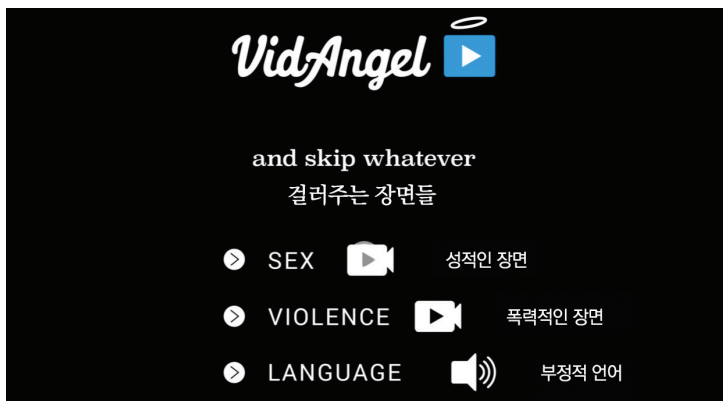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현실이 ISIS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이들을 도울 방법은 많다. 아직 이라크에 남아 있는 23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침략의 세월 이후 황량함

가운데 생명을 새로 세우는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러한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가 이라크의 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이라크 교회의 미래는 과거의 화려한 종교 역사로부터가 아니라, 회심한 회중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GNPNEWS]

번역. 국제팀

폭력, 선정적인 장면 걸러내는 필터링 서비스 ‘비드엔젤’ 등장

최근 미국 넷플릭스, 아마존 등에서 서비스 개시



▶ 비드엔젤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 안내 화면

케이블TV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을 자동으로 걸러 내주는 서비스가 최근 미국에서 등장했다. 화제의 서비스

는 ‘비디오 천사’를 의미하는 비드엔젤(VidAngel).

지난해 말 첫선을 보인 이 서비스는 당시 20세기폭스, 워너브러더스 등 메이저 영화사들의 고소

로 법원으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예비명령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넷플릭스와 아마존 콘텐츠스를 통해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다. 비드엔젤 닐 하먼 대표는 “최근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콘텐츠들에 대한 필터링 서비스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월 8달러(9천 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이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언어, 노출, 폭력 장면 등을 걸러서 시청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가족이 맨손으로 싸우는 것은 무방하지만 잔혹 장면을 보고 싶지 않다면 폭력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여자가 한쪽 다리에 피를 흘리는 것’은 차단하지만 ‘남자가 여러 남자에게 주먹질을 하

는 것’은 그대로 두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리모컨을 한 번 클릭하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폭력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을 차단할 수도 있다.

닐 하먼 대표는 “미국 부모들은 부적절한 장면을 걸러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도록 인터넷 영화 필터링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비드엔젤측은 지난해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40%가 이런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72%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전한 콘텐츠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05년 가족영화법에서 이러한 필터링을 허용한 바 있어, 이 서비스 제공에 법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청자들이 이미 영화 콘텐츠 사용

료를 지불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영화제작사들이 재정적인 손해를 입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먼은 “영화제작사들이 비드엔젤과 싸우는 대신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건전한 미디어를 시청할 가족들의 권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필터링이 여러 창작자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비드엔젤은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 깨어 있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GNPNEWS]

번역. 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8) - 전라북도 편

군산 선교, 서해의 낙도까지 찾아 의술과 복음으로 섬겨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 기독교 역사는 132주년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군산 선교부의 설립

최초로 군산에 온 선교사는 레이 놀즈와 의사 드루 일행이었다. 이들은 1894년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전라도 답사 중 군산에 상륙했다. 선교부는 이들의 유익한 보고를 받고 전주에 이어 군산에 두 번째 선교부를 열기로 했다. 1895년 3월, 전킨과 드루 선교사가 선교부 임무를 받고 군산에 도착했다. 이들은 수 주일 동안 군산과 주변에서 아침마다 설교를 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봤다. 사람들은 생선, 굴, 달걀, 미역 같은 것들을 담례로 가져왔다. 그때 접촉한 사람들 중 군산의 김봉래와 송영도 등이 믿기로 작정하고, 선교사들이 다시 군산에 올 때 원입 교인으로 문답해 줄 것을 청했다.

1896년 2월경, 전킨 목사의 가족이 모두 이사를 왔다. 두 달이 지난 후 의사인 드루 선교사의 가족도

이사 와서 자택 사랑방에 진료소를 열고 환자들을 진찰하기 시작했다. 전킨은 진료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주일에는 사랑방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예배를 드렸다. 1896년 7월 20일(월요일)에 전킨 목사의 집 사랑에서 김봉래와 송영도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다. 유아 세례는 그해 10월 송영도의 어린 딸이 받은 것이 전라도 최초의 유아 세례였다. 이는 전주에서 실시된 세례식보다 일 년 앞선 것이었다.

전킨과 드루는 군산 선교 기지를 궁말(구암리) 산 밑으로 정하고, 인근 지방을 다니며 순회 전도를 했다. 1897년에는 김제군 송지동까지 왕래하며 송지동 교회를 세웠다. 당시 여자들의 예배 참석은 큰 사건이었다. 그 무렵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남녀의 구별된 생활은 신기하게 보일 정도였다. 전킨은 1897년 7월 어느 날 군산 주일예배 광경을 이렇게 적었다.

“여자들은 문이 닫혀있는 사랑방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남자들은 사랑방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다. 여자들은 창호지로 된 문을 통해 들려오는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1899년부터 전킨은 새로운 기지로 자리 잡은 궁말 기슭에 선교 센



▶ 드루 선교사의 의료선교선. 자원한 전도인들과 함께 서해안을 따라 인근 마을을 순회하며 선교 활동을 하였다(출처: 군산기독교인협회 캡처).

터와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군산 숙소와 10리가량 떨어진 궁말을 왕복하며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 늦가을이 지나 건물이 완성되자 그곳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1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구암리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

구암리 교회, 군산 선교기지 되다

미국 사람들이 군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 두루 퍼지자 인근 각지에서 남녀노소가 구경삼아 모여 들었다. 어떤 이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튿날 월요일에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1899년 5월 1일에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모든 조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새 개항 조약에 따라 일본이 해안지대를 장악하자 항구에 살던 기독교인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전킨은 신자들이 사는 외곽과 시골 마을인 지경, 만자산, 남차문, 김제 송지동, 성말에까지 가서 순회 전도하며 기도 처소를 세웠다. 인원이 많아지면 교회를 설립했다. 드루 선교사는 자원 전도인들을 인솔하고 전도선으로 서해 고군산 섬들과 오식도와 연안의 곳곳을 돌며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에 관한 책자와 전도지를 수천 명에게 나누어 주어 많은 열매를 맺었다. 1899년에는 군산 선교의 다음

주도자가 될 불(William F. Bull) 선교사가 도착했다. 그는 군산에서 그 후 40년간 사역을 분담했다.

고군산섬, 오식도 등 섬 전도

군산 선교부는 양손에 복음사역과 의료사역을 동시에 들고 시작해 놀랍게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드루 선교사는 선교부가 열린 즉시 의료 선교를 했고, 병자들은 자유롭게 선교부를 방문했다. 전킨은 그들과 곧 친구가 되어 사랑방에 초대했다. 조선인들은 이 외국인들을 이 먼 곳까지 오게 한 믿음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플 때도 있고 자리를 비울 때도 있었지만 그는 첫 두 해 동안 4000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그러나 이 혹독한 일정의 사역으로 드루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1901년 건강 때문에 선교부의 소환 명령을 받아 미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군산에 돌아올 수 없었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전라북도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의미>(2012) <한국선교이야기, 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2010)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8. 24 ~ 9. 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영기 김경선 김병철 김성훈 김애심 김유남 김혜신 박숙자 안수경 안현숙 이미희 이정희 이준진 장미자 정진미 조경미 조명숙 조성실 조형광 주유순 무명

교회 및 단체

저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마하나임침대교회 목자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열방그루터기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선교 통신

마약 중독자,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

오피도어선교회가 소개한 중앙아시아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개한다.

<편집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빅터(가명)는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성장기에 영하 50도가 넘는 러시아의 야쿠티아(Yakutia)에서 살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헤로인 중독자가 되었다.

그 후 2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중앙아시아로 오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불법적인 마약 밀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마약상 활동도 얼마 가지 못했다. 1996년에 헤로인 4kg을 매매하다가 경찰에 잡혀 감옥에 수감되었기 때문이었다.

감옥에서 그는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보낸 소포에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 그 친구는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는 듯 빅터에게 성경책을 내밀었다. 별달리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빅터는 그 성



제공: WMM

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빅터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다시 일어나 계속 성경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가 곧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경에 나오는 영생에 대해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영생을 얼마나

소망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그저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이 영생을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 나갔다. 빅터는 점차 천국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고 나중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기쁨이 자신 안에서 샘솟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감옥에서 나온 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마약중독자 치유센터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지역 교회 리더로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위험했다.

빅터는 지금도 헛간 같은 장소에서 10명 남짓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이런 장소도 등록된 공간이 아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임의 지체들은 거리 전도는 하지 않고 주로 밤에 각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간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세례에 관하여 자세히 물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그는 그녀의 집에 방문했다. 빅터는 차를 마시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친척들 또한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GNPNEWS]

 **믿음의 현장을 가다 | 요양보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명숙 권사(영원간병회 대표)**

“어렵고 힘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병을 앓거나 가족 중 환자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 번 정도는 도움을 받았을 영역, 간병하는 분들의 손길이다. 이들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는 요양보호사다. 맞벌이가정이 많고, 짝 짜인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가족의 간병을 맡을 수 없을 때, 이들의 도움은 너무



도 소중하다. 17년째 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김명숙 권사(63. 부산 영원간병회 대표)를 만났다.

아직 더위가 한창인 8월 말 부산을 찾았다. 사하구 당리동에 위치한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조용했다. 대화를 시작하자 휴대전화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대화를 마칠 때까지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다. 한결같이 다급한 전화였다.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찾는 모양이었다. 김 권사는 이들을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병원에서는 이들을 간병사라고 하며 약칭으로 ‘간사’라고도 호칭한다고 했다.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 만큼 이들이 겪게 되는 처지와 상황도 다양할 듯싶었다.

그러나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요청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조금 애매한 모양이었다. 사람을 찾는다고 수소문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여러 통의 전화에도 담당자가 쉽게 확정되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다 한 전화 통화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듯했다. 인터뷰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 요양보호사를 섭외하고 배치하는 일이 쉽지 않네요.

“병원의 상황에 따라 우리 여사님들을 파견하고, 관리해요. 또 병원에서 받은 월급을 지급하는 일까지 제 몫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양쪽 상황을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어서 억박지르는 경우가 많아요(웃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 별명이 ‘깡패’가 되어있더군요(웃음).”

- 듣기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어릴 적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싶었는데, 두 분도 일찍 돌아가셨죠. 저와 연관된 사람들이 자꾸만 죽는 것 같아서 한 때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시어머니

가 중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돌보려고 하더군요. 이전에 간호조무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섬기겠다고 했죠. 옛날에는 제대로 된 도구가 하나도 없어서 직접 똥, 오줌을 손으로 다 받아냈어요. 면을 포개어서 기저귀로 만들고 매일 씻고 삶는 수고를 했죠.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 돌보다 간병 일 시작

- 그럼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네요.

“네. 본격적으로 일한 지는 올해로 17년째예요. 저는 가방끈도 짧고 시집도 일찍 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어느새 의료분야에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더군요. 한국에 전문요양병원이 막 들어서기 시작할 때, 친구 중 한 명이 저더러 간병회를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전문 요양보호사라는 이름도 흔치 않을 때였죠. 사실 큰 식당 운영해서 밥 하는 게 좋고 저한테 맞지, 병원에서 일하는 건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돼서 일을 시작했어요.”

-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한 명당 20명의 환자를 돌봐요. 일주일에 두 번 쉬고, 하루에 12시간을 꼬박 일해요. 환자들을 위한 대·소사, 식사 수발, 물리치료 등 육체적으로 힘든 모든 일을 하죠. 체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대끼면 갑자기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협회로 옮겨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다 참 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10년간 꾸준히 100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저와 함께 일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어떤 일도 꾀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요양보호사들을 뽑는 기준이 있나요?

“나이와 학력은 관계없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좋죠.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면접을 본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6개월간 이론 공부를 하게 해요. 그 후에 병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 요양보호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나요?

“대부분이죠. 돈만을 생각하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환자들 대부분 어르신이셔서 내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며 전심으로 섬겨야 해요. 특히 어르신들을 목욕시킬 때 조심해야 해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골절되거든요. 그런 의료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제게는 무슨 은혜인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



요.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김명숙, 당신은 교회를 다니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라고 말해요. 저도 정말 인정하죠.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 ‘뻑’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 하나님을 ‘뻑’이라고 말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과 이혼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협회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도 익숙해지던 중 7년째 되던 해에 행정처리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앞친 데 댔던 격으로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파견되어있던 세 병원이 한꺼번에 부도가 났어요. 일한 대가를 못 받았죠. 보험과 관련된 행정처리 문제도 쉽지 않았고, 병원이 그렇게 쉽게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어요.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제 인생에 큰 위기였어요.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으면 몰라도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소개비를 조금 받고 협회를 운영할 뿐인데, 1억 원의 빚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으니, 기가 막혔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위기상황에 복음 만나

- 복음을 만났다는 의미가 뭔가요?

“복음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더군요. 복음을 만나보니 저는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복음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죠. 일을 하면서 복음과 선교훈련까지 받으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집에만 오면 바로 뻗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죠. 당시 훈련받는 선교단체의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듣기 힘들었어요. ‘내가 했는

데, 왜 주님이 하셨다고 해?’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 어떤 일이었나요?

“한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다가 환자가 다친 거예요. 환자 보호자가 막무가내로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어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전해는 들었지, 저한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무리 병원에서 좋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대표인 저에게 이 일이 넘어왔어요. 보호자를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 뻑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날 보호자를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완강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병원 관계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였어요. 그때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는 것어요. 그동안 저의 완강한 태도를 회개했어요. 그 후, 모든 순간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권사님 때문에 주위 분들도 조금씩 주님을 경험하게 되네요.

“네, 정말 은혜예요. 저희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이 복음을 늘 전하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요양보호사

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법, 손님들을 대하는 법 등을 가르치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이 끝나면 꼭 ‘내가 만난 복음’을 나눕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이 ‘아, 대표님이 또 예수님 믿으라칸다.’면서 웅성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나누다 보니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제게 찾아오더군요. 다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다니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처 교회들을 출석하도록 교회를 알아봐 주죠.”

- 그러면 병원에서도 복음을 전하나요?

“그럼요. 제 개인의 경험을 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과 수요일 오후,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병원 근처 교회 목사님들께 예배를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 예배드리시는 장소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병원 내 교회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하니까 휴게실에서부터 물리치료실, 강의실 같은 곳에서 드렸어요. 처음에는 환자들 오지 않을까 봐 제가 간식이나 휴지 같은 것들을 준비했었죠.”

비즈니스 영역 기도 모임 가져

- 주위에 권사님같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제가 속한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지요. 줄여서 ‘비전 모임’이라고 불러요. 약 4년 전에 유통, IT, 요양, 전기, 자동차 등 전문 업계에서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된 모임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회의하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됐죠.

〈6면에 계속〉



▶ 올해로 5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 김미영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침대 커버를 갈아주고 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성전에 충만한 영광의 복음 (6)

진정한 부흥은 심령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 신학자, 장로, 직분자가 바로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는 병든 자아의 옛 습관을 내던져버리고 목숨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자. 비록 얕아질지라도 순종하려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목자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하는 자들의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육과 영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셨다. 옛 자아의 같고 닮음으로 살 수 없다.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거듭남의 길은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벧전 1:23~24)으로만 된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소망 없는 나를 또다시 놀라운 생명으로 살게 한다. 예

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나의 최선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아는 만큼 순종하면 된다. 단순한 결론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가 참된 지혜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저버린 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경건의 열망이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라. 또한 체험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심령의 성전을 세우신 사건을 기억하라. 너저분한 쓰레기들, 경험, 상식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천국

도 부족할텐데 이 누추한 내 마음에 임하신다니...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비결

주저하지 말고 계속 말씀으로 달려가자. 우리의 다음세대가 모든 상황에 유일한 해답인 성경에 목숨 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걸어가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영화로워 지는지 보여주자.

종교개혁 이후 또다시 교회가 타락했을 때, 경건주의, 모라비안, 청교도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일해오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과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일러스트=임이랑

복종하게 하여(고후 10:4~5)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골 1:28)로 세우는 증인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 그것이 참된 성전, 심령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바로 이 일에 오직 성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해주셨다. 이 일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건의 지식뿐 아니라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한다(2016.6 메시지 정리).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1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내가 굶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굶다!

뜯어라!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디서든 전도를 멈추지 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김정화 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를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값: 19,000원
(별책부록 포함)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중에 만났어요. 한 차례 고비들을 지나고 최근에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이런 어려움과 기쁨의 과정들을 함께 겪으니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실감해요.”

- 모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저희는 흠어져서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이와 같은 기도 모임을 가져요. 처음 순종한 저희가 일종의 비전 팀 지부장이 된 셈이죠. 저희 부산에도 모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말씀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는지. 장난 아닙니다. 이번 가을에는 전국 비전 집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 나이도 있으신데 활동하기에는 괜찮으세요?

“어디가면 알아줄 나이도 아니고, 부엌에서 설거지만 할 나인데요.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섬길 수 있을 때, 더 섬기려고요. 주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거든요. 남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저를 위한 돈은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주님의 성전이야.’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펴둑 차려졌어요. 너무 제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좋은 것도 먹어요.”

-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꼭 말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GNPNEWS]

S.Y.





인생의 첫 아웃리치, 짐바브웨에서 경험한 십자가 은혜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부족을 채우신 주님께 감사하다. 인생 첫 아웃리치로 짐바브웨에 가기까지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려웠다. 출발 전, 고향 제주에서 주님을 모르는 어머니가 쓰러져 혼수상태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과연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주님께 여쭙볼 수밖에 없었다. '짐바브웨인가요, 믿지 않는 어머니 옆인가요?' 말씀 묵상 중 "이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라는 선교사님의 말이 귀에 맴돌아 결국 짐바브웨로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돼 모든 모임에서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또 짐바브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팀장님이 내 사정을 팀원들에게 나누었고 팀이 합심 기도를 하였다. 그 후로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

신 눈,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훈련된 정신력과 체력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난 어떤 일을 할 때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버리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다. 그런 내게 주님은 작은 사건들을 허락하



제공: WMM

셨다. 높은 바위 위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 그만 안경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덕분에 자연을 보고 사진을 찍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만족해야했다. 말씀과 기도엔 전념

케 하셨다. 게다가 정해진 시간을 공지하고 마지막까지 팀원들의 이동을 살피는 타임키퍼 직임을 맡았는데 가장 중요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첫 시간의 알람을 놓친 것이다.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매시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였고, 기도를 통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셨다.

그러다 아웃리치 일정 중 발을 다치면서 걷기가 힘들어졌다. 나 개인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거나 팀이 뒤쳐진다는 생각에 이런 나의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주님은 이해해주는 지

“
매시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기도를 통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체들을 통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팀원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셨다.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을 몽땅 보여주시고 이것이 죽은 옛 자아의 모습임을 알게 하였고, 십자

가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조치해 주셨다. 아웃리치를 마친 후, 어머니가 전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아내를 통해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아웃리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정말 세상과 자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드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다. 주님이 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만 기대한다.

[GNPNEWS]

고정암 집사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야, 나도 예수쟁이야 걱정말라우”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친척을 찾은 조선족 아주머니

조선족인 아주머니는 나이 육십이 넘도록 그렇게 가난하다던 북한의 친척 집에 아무것도 보낼 수 없었던 어려운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역자의 도움의 손길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 아주머니는 다른 생각 없이 북한에 다녀오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몇몇 친척을 만나서 가져간 것을 몽땅 나누어 주고, 자신이 입었던 옷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것도 더 남루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오셨습니다.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양식을 축내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 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했습니다. 가지고 간 양식과 돈, 의약품 등을 다 나누어 주고는 마지막으로 백두산 자락의 한 곳을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친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곳에서 겪은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친척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

지를 몰라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고 간단한 식사를 마쳤을 때 친척 되는 여인의 입에서 “오늘은 주일인데...”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전히 실수였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친척 때문에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소? 아니 지금, 주일이라고?” 조선족 아주머니가 소리를 죽이며 묻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북한의 친척은 들킨 것이 후회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는 “야, 나도 예수쟁이야! 걱정말라우!”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메가?”

두 여인은 조용히 산자락을 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멀리서 보면 알 길이 없는 움막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진 움막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예배처소였습니다. 그곳에 열일곱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리 낼 수 없는 찬송가가 불렸습니다. 81세의 할머니가 예



▶ 탈북자들이 중국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출처: 모퉁이돌선교회)

배를 인도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예배 처소

예배를 마치자 그 할머니는 한 젊은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릎이 연약해질지도 몰라.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지 않잖아. 그러니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자우. 기도해 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종이에 줄을 그어 이름과 나이를 써서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묵속에 감추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펼쳐 보인 그 종이에 28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북한 쪽 백두산 기슭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도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천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정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백만의 군대보다 더 두려운 기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낙스는 요한 복음 17장을 읽다가 극적으로 회심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조국에 비치길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했다. “스코틀랜드를 살려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이후 그는 일평생 전쟁과 피난 속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에 순종,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프랑스와 전쟁 중 포로가 되어 노예선에 감금된 그에게, 사나운 폭풍우를 만난 선장은 기도를 요청했다. 당시 가톨릭 신자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백만의 군대보다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기도는 유명했다. 기도의 영광을 깊이 누릴수록 그의 삶은 오직 두려운 주님을 의식했다. [GNPNEWS]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다시복음앞에

‘다시 복음앞에’

RETURN

to the

GOSPEL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로마서 1:17 |

‘오직 믿음으로’

2011 다시복음앞에 ‘오직 복음으로’
 2013 다시복음앞에 ‘오직 성경으로’
 2015 다시복음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 금식기도성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강사진



P.A.V.국 선교사

이재만 교수
(창조과학선교회)이태희 목사
(그안에진리교회)김정화 선교사
(전능자의그늘미나스트리)박종진 선교사
(헤브론선교대학)조완순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민경동 장로
(전 에스라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화중부 목사
(남서울교회)김용의 선교사
(LOG Mission)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김관영 목사
(문화행동아트리)

2017.10.31-11.03

장소 | 선한목자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주관 | 복음기도동맹

주 제 : ‘오직 믿음’ (로마서 1:17)

주관.주최 : 복음기도동맹

참가비 : 헌금

참가신청 : 온라인(www.gpally.org)접수
(선착순 마감)

문의 :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10-5938-4641

070-5056-3208

이메일 gnpall@daum.net